

가수는 '허당' 이승기 축구는 '광주' 이승기

'광주의 스타' 이승기가 '국민 스타'를 꿈꾼다.

광주 FC의 '겁없는 신인' 미드필더 이승기(23)가 조광래 월드컵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25일 K-리그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8호골을 터트렸던 이승기는 26일 발표된 월드컵대표팀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이승기는 전남 이현승(23) 그리고 전북 서정진(22)과 함께 신예 미드필더 3인방으로 주목을 받으며 첫 국가대표 발탁의 영예를 안았다.

월드컵 대표 발탁

"국민 스타 되겠다"

축구 명문인 북성중과 금호고를 졸업한 '광주의 아들' 이승기는 177cm로 큰 키는 아니지만 밤 재간이 좋고 슈팅이 매섭다. 울산대 주장을 맡았던 지난해 전국 대학대회 득점왕에 오를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다.

이승기는 "오전 훈련에 앞서 (최만희)감독님께서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산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했다"며 "훈련이 끝나고 국가대표에 선발됐다고 하셨는데 꿈을 꾸는 줄 알았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발탁 소감을 밝혔다.



광주FC 이승기

감독의 마음을 얻었다.

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승기는 포항 고무열(8골1도움)과 신인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이기도 하다.

이승기는 "축구 선수는 축구로 이야기 해야한다. 나의 장점을 잘 살려 플레이 이를 하다 보면 저절로 신인왕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경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다"며 "대표팀에 가서 감독님과 선배들에게 많은 부분을 배우고 경험하고 오겠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조병국 합류

월드컵 3차예선 출전 25명 발표

해외파 공격수 손흥민(함부르크)과 베데랑 중앙 수비수 조병국(베갈타 센다이)이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이들을 포함해 내달 7일 폴란드와의 평가전과 11일 아랍에미리트와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전에 출전할 대표 선수 25명을 발표했다.

공격진에는 그간 중용된 최전방 공격수

박주영(아스널)과 일본파 이근호(감바 오사카) 및 지동원(설립랜드), 남태희(발랑시엔)가 다시 부름을 받았다.

미드필더진으로는 기성용(셀틱)과 구자철(볼프스부르크), 윤빛가람(경남), 이용래(수원), 이현승(전남), 김보경(세레소 오사카)이 소집된다. 이승기(광주FC)와 서정진(전북)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라인 중앙 수비수로는 꽈대휘·이재성(울산)·이정수(알 사드)·홍정호(제주), 측면·자원으로는 흥철(성남)·차두리(셀틱)·최효진(성주)·김영권(오미야 아르디자) 등이 선발됐다. 골키퍼에는 정성룡(수원)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영광(울산)이 발탁됐다.

/연합뉴스

▶ 트립형 매입차량은 상담후결정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차량형 본인 네비 매립 설치종 17만원 ⇒ 12만원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미감자 57만원 ⇒ 45만원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미감자 61만원 ⇒ 49만원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미감자 65만원 ⇒ 53만원
▶ 트립형 매입차량은 상담후결정

▶ 트립형 장착 모습

▶ 매립장착모델 전차종가능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 하는일

- 투마센팅, 3M코팅, 모비스센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최경주, 1타 차로 날아간 1천만 달러



8번홀 통한의 더블보기 ... 연장 합류 못하고 빌 하스에 우승컵 넘겨

PGA 플레이오프 최종전

최경주(41·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최경주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1개와 보기 2개를 적어내는 기복이 심한 플레이를 펼쳐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7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경주는 풀레이오프 순위에서는 11위를 차지해 보너스 상금 30만 달러를 받았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마친 빌 하스(29·미국)는 헨터 메이힌(29·미국)과 최종합계 8언더파 272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세 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랭킹 25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하스는 이번 우승으로 단숨에 1위로 뛰어올라 1천만 달러 보너스 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하스는 투어 챔피언십 상금 140만 달러를 포함해 한번에 1140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플레이오프 우승



빌 하스가 25일 미국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PGA 투어 투어챔피언십 최종순위

①	빌 하스	-8 272(68 67 69 68)*
②	헨터 메이힌	(67 68 66 71)
③	루크 도널드	-7 273(66 68 70 69)
최경주		(68 65 70 70)
애런 배들리		(68 69 64 72)
⑥	찰스 하威尔 3세	-6 274(67 71 68 68)
앤더 스콧		(67 65 74 68)
제이슨 데이		(67 67 69 71)
⑨	보 반 펠트	-5 275(71 70 66 68)
⑩	필 미켈슨	-4 276(68 70 67 71)
29	양용은	+9 289(72 70 75 72)

*연장 우승

/연합뉴스

최경주 '제2의 전성기'

을 상금 443만달러 4위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41·SK텔레콤)가 2000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최경주는 25일(현지시간) 끝난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1타 차로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해 공동 3위에 그쳤지만 시즌 상금과 특급 대회에서 보여준 성적은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경주는 비록 투어 챔피언십과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를 동시에 우승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이후 최고의 성적을 남겼다.

올해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을 포함해 플레이오프 최종전까지 나가 정상급 골프의 기준이 되는 시즌 상금 400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7년 25개 대회에 출전해 시즌 기준으로 가장 많은 458만 달러의 상금을 탄 최경주는 올해에는 21개 대회에 나가 443만 달러를 벌어 상금 랭킹 4위에 올랐다.

2008년 이후 부진한 성적을 내며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보완 듯이 재기에 성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7기가 35만원 ⇒ 30만원

▶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 샤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기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7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7기가 20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퍼 별도 2만원

▶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바디방수, 전방방수, 후방방수

▶ 차량용 GPS, 차량용 GPS

▶ 차량용 GPS, 차량용 GPS